

# 영상문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도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 남 석 (부경대)

## < 목 차 >

- |                             |   |
|-----------------------------|---|
| 1. 문제 제기                    | 4. 학습 활동과 연계 학습의 궁극적 목적                   |
| 2. 영상문학 체제의 분포와 그 불균형성      | 5. 영상문학 교육 체제 선정과 『문학』 교과서 편찬상의 기준에 대한 재고 |
| 3. 『문학』 교과서에 다수 수록된 시나리오 분석 |   |
| 3.1. 「내 마음의 풍금」의 수록 양상과 문제점 |   |
| 3.2. 「서편제」의 수록 양상과 문제점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3년 8월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여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습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11종 『문학』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세부 장르로서 영상문학 분야의 체제 수록 방식과 그 적합성 여부에 대해 논구한 결과이다. 분석 체제로는 시나리오 「내 마음의 풍금」과 「서편제」를 선별했다. 해당 체제로 선정된 작품 별로 ‘수록 방식’, ‘체제 선택 이유’, ‘학습활동’을 분리하여 특성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현행 교과서 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했다. 교과서 별 수록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록 체제의 편중성과 관련 전공 지식의 부재를 숨기기 어려웠다. 특히 영상문학의 제재 선택 이유와 발췌 형식에서 교과서 체제 상 적지 않은 결함이 노출되고 있었다. 이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당 제재를 선택하고 가르치는 교육 과정에 대한 필연적이고 전문적인 견해를 도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 고등학교 국어, 문학교과서, 영상문학, 「내 마음의 품금」,  
「서편제」

## 1. 문제 제기

『문학』 교과(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보완하여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어야 할 기초적인 문학 작품(학습 제재)을 소개하고 해당 학습자의 연령과 수준에 적합한 문학 이론(체계)과 역사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에 목적을 두는 교과(서)를 가리킨다. 이러한 목적을 충실하게 구현할 목적으로 검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는 2013년 8월(30일) 자 검정을 통과한 11종 교과서가 존재하고 있다.

현 검정 체제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교과서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명확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문학』 교과서는 각종 장르(하위분류)로 분할되게 마련이고, 각 분야마다 관습적인 지침이 암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령 서정 장르를 예로 들면, 한국의 근대시뿐만 아니라 ‘고전시’로 흔히 불리는 전통적인 한국시를 골고루 다루어야 한다는 지침이 작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대시 역시 일제 강점기(광복) 이전과 그 이후를 균형 있게 수록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제약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장르 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현 전공자(연구자)들에 의해 강하게 지지/운영되곤 한다. 따라서 모든 장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며, 이 역시 관련 장르의 형편과 사정(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 한다는 관습적 틀(통념)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을 인정한다면, 『문학』 교과서를 논구하기 위해서는 하위 장르에 해당하는 전문 분야에 대한 소견을 밝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1종 『문학』 교과서의 편찬 내용 중에서 ‘영상문학’ 제제와 그 교육 내용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현행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영상문학 분야를 독립된 분야로 분할하여 그 문제점을 살피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상문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먼저 정리(한정)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영상문학 분야 중에서 영화 시나리오 수록 제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실질적으로 영상문학에 대한 관심과 미래적 발전 양상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변적 조치는 현실적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그 결과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물론이고 『문학』 교과서에서도 극문학 작품의 비중과 중요도는 여전히 최저 상태에 머물고 있고 제제 채택이나 수록 분량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영상문학 교과서 편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역시 제대로 산출된 적이 없어 관련 사안에 대한 대처는 미온적이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선행 연구의 부재나 약화는 영상문학에 대한 홀대나 오해가 기존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즉 문학의 높은 비중을 정당하게 여기고, 그 중에서도 시와 소설의 수록 분량 확대를 관습적으로 용인하는 시각(통념)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관습적 시각 하에서는 영상문학의 비중 감소나 극문학 수록 편수의 부족은 문제적 상황으로 인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 내적 층위에서 교과서 수록 체계나 내용 조직에 대해 세심하게 고찰해야 할 당위성 역시 사라진다고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영상문학 제제의 문제점을 논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제점 진단에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영상문학 제재의 분포와 그 불균형성

『문학』 교과서는 국어 과목 중에서 제재 선택과 수록 비중이 매우 중시되는 교과서이다.<sup>1)</sup> 따라서 교과서의 구성과 그에 따른 성패가 대부분 채택 작품과 수록 분량(범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 따라 2013년 8월 30일에 검증을 마친 11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영상문학 관련 제재만 별도로 추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작가	작품	갈래	출판사
1~3	하근찬 원작, 이영재 각색	내 마음의 풍금	시나리오	비상교과서(우)
				지학사
				천재교과서(정)
4~6	이청준 원작, 김명곤 각색	서편제	시나리오	비상교육(한)
				동아출판
				좋은책신사고
7~8	이정명 원작, 김영현 외 극본	뿌리 깊은 나무	텔레비전 드라마 대본	해냄에듀
				미래엔
9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공동 경비 구역 제이에스에이	시나리오	창비
10	원작 강풀, 시나리오 이만희	그대를 사랑합니다	시나리오	좋은책신사고
11	박선자, 권기경, 노유경	반올림 2	텔레비전 드라마 대본	천재교과서(정)
12	정현우 각본, 김달중 감독	페이스메이커	시나리오	동아출판
13	박문철 외	이빨 두 개	시나리오	해냄에듀
14	홍정은, 홍미란	쾌걸 춘향	텔레비전 드라마 대본	천재교과서(정)
15	세익스피어 원작	햄릿	시나리오(외국)	미래엔

1) 김창원, 「문학교육의 성격과 문학 교과서의 지향」, 『국어교육학연구』(27집), 국어교육학회, 2006, 196~198면 참조.

번호	작가	작품	갈래	출판사
16	피터 잭슨 감독	반지의 제왕	시나리오(외국)	동아출판
17	스티븐 자일리언	윈들러 리스트	시나리오(외국)	천재교육(김)
18	장진	소나기는 그쳤나요?	시나리오	상문연구소
19	이범선 원작, 나소운, 이종기 각색	오발탄	시나리오	상문연구소
20	김영탁	헬로우 고스트	시나리오	상문연구소
21	추민주	빨래	시나리오	상문연구소

영상문학 제재 수록 편수가 21편(16작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sup>2)</sup> 문학 교과서가 11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교과서에 약 2편(15작품)에 불과한 수치이다(동아출판 「서편제」와 「반지의 제왕」은 보조 제재로 수록). 이러한 수치는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문학』 교과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상문학에 대한 홀대가 정도를 넘어섰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발견된 문제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상문연구소의 시나리오를 제외한다면, 『문학』 교과서 당 영상문학 수록 편수는 약 1.5편에 불과하며, 그나마 몇 작품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고등학생들이 『문학』 교과서를 통해 접하는 작품 수는 지나치게 협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균형한 수록 편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영상문학의 제재 수록 작품(편수)을 극문학 범위까지 넓힌다고 해도, 서정문학이나 서사문학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그 중요도 역시 크게 떨어지는 형편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그나마 채택된 제재의 적합성과 대표성(완성도)이다. 작품 수록에서 과생되는 질적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2) 『문학』 교과서 제재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선정”해야 한다는 기준은 이미 공개된 바 있다(진재관 외, 「2011년 고등학교 선택과목 검정도서 검정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CRC 2010-12)』, 2010, 41면 참조),

있다. 소수의 작품 수록도 문제겠지만, 비록 소수의 수록 작품이라도 제대로 완비된 제재로 정리해서 수록하겠다는 고민과 의지 그리고 그 대책이 부재하는 셈이다. 이것은 고등학생 학습자에게 편협한 장르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영상문학에 대한 착오와 폄하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현재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갈래로서 영상문학은 대부분 영상문학 고유의 특질을 드러내며 문학의 한 하위 갈래(시나리오의 고유성)로 인정되는 분야라기보다는, 여분의 장르이거나 부차적 갈래로 취급되고 있는 형편이며, 결과적으로는 영상문학에 대한 관심과 접근을 차단하는 악영향마저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영상문학 제재의 적절성을 점검할 목적으로, 『문학』 교과서 수록된 대표적인 제재(영상문학 작품)를 선택하여, 교과서 제재 구성의 타당성을 점검하기로 한다. 논구 대상이 된 해당 제재에 대해서는 ‘수록 방식’을 살피고, ‘제재 선택 이유’를 논의한 이후, ‘학습 활동’과의 연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 물론 이러한 제재 별 검토가 일단락된 이후에는, 통합적 측면에서 해당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도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교과서 제재로 선택된 작품이 교육 목표에 부합되는가를 살펴야 하고, 설령 부합된 작품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학습 텍스트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어야 하며, 이러한 텍스트 선택과 제시가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품과 교육 목표의 부합 여부는 성취 기준, 교육 수준, 문학적 평가 등과 관련이 깊고, 적절한 학습 텍스트 제시 여부는 발췌 대목의 완결성, ‘중략’의 적절성, ‘앞/뒤/중간 줄거리’의 효율성, 수록 분량의 적절성, 갈등 체험 여부 등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sup>3)</sup> 물론 이러한 목표와 제시 사이에서 학습 능력을 제고할

3) 교과서 작품 수록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본 수용 양상’을 중시하는 기준과,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본 수용 양상’을 따지는 기준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최광석, 『홍길동전』의 교과서 수용 양상과 목표 학습 활동의 계구성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어문학』 (108집), 한국어문학회, 2010, 139~154면 참조). 제재 선택 이유는 후자에 속하고,

수 있는 적절한 학습 유도 가능성과 자가 학습의 실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3. 『문학』 교과서에 다수 수록된 시나리오 분석

#### 3.1. 「내 마음의 풍금」의 수록 양상과 문제점

하근찬 원작 이영재 각색 「내 마음의 풍금」은 총 3종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를 수록한 3종의 교과서는 비상교과서(우한용), 천재교과서(정재찬), 지학사 출간 교과서이다. 우선, 이 시나리오가 수록된 방식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3.1.1. 「내 마음의 풍금」의 수록 방식

비상교과서(우) 교과서는 「내 마음의 풍금」과 관련하여 작품의 ‘배경’과 ‘등장인물’ 그리고 ‘앞부분 줄거리’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고, 각색자 이영재를 소개한 이후에 장면(S#) 62부터 해당 작품의 장면(scene)을 수록하고 있다. 교과서 분량으로 여섯 면(교과서 페이지로 환산)에 걸쳐 시나리오를 게재하였는데, 그 중 두 면에는 사진을 병행하여 수록하였다. 수록 사진은 「내 마음의 풍금」이 영화로 제작되었을 당시, 수하(이병현 분)와 홍연(전도연 분)이 만나는 화면(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교과서 수록 대목은 장면 62~66의 일차적 분량을 보여준 이후에, 일종의 ‘중략’을 시행한 다음, 장면 75에서 장면 81까지 다시 이후 분량을 수록하는 방식으로 대부분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수록 과정에서 장면 67에서 장면 74에 이르는 중략에 대한 양해나 설명은 부재하다.

---

수록 방식의 적절성 검토는 전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수록된 내용은 주로 여제자 ‘홍연’과 젊은 남성 교사 ‘수하’의 사랑(관심)이 짝 트는 대목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홍연의 일기를 통해 수하는 홍연의 생각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해 차츰 반응을 나타내는 수하의 심리가 부각되고 있으며, 축구 시험 중 양호 선생님에게 한 눈을 파는 수하를 목격하고 마음속으로 질투하는 홍연의 모습 역시 주요하게 포착되고 있다. 이후 수하에 대해 원망의 마음을 갖고 학교를 무단결석하던 홍연은 가정 방문을 한 수하에 의해 풀어지고, 두 사람의 감정이 더 한층 밀착되는 정황도 암시된다.

다음으로, 천재교과서(정) 교과서는 「내 마음의 풍금」과 관련하여, 간단히 ‘앞부분의 줄거리’를 소개한 이후, 장면(S#) 54부터 일련의 장면을 수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장면 54는 수하가 복도를 순시하다가 홍연의 팔을 살짝 꼬집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홍연은 수하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일기(검사)를 통해 자신의 설레는 심정을 수하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천재교과서(정) 교과서는 장면 54에서 수하와 홍연의 에피소드(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부터 소개함으로써, 두 사람의 감정이 피어나는 계기를 분명하게 소개하려는 의도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재교과서(정)은 비상교과서(우)에 비해 두 사람의 감정이 피어나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는 특장을 발휘한다고 하겠다. 또한 교과서 97면에서 103면까지 총 7면에 걸쳐 장면 54부터 장면 67까지 14개의 씬(scene)을 연속적으로 게재하여 사건 진행 과정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단 장면 59는 임의로 삭제). 이중 장면 67은 5학년 1반 교실에서 홍연이 느끼는 내면 심리를 부각하고 있어, 장면 54로부터 시작된 홍연의 수하에 대한 마음을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는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결국 천재교과서(정)는 홍연의 내면 심리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하의 장난이 빛은 결과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학생 홍연의 미묘한 심리 변화(사랑)를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찾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학사 교과서는 「내 마음의 풍금」을 수록할 때, 간략히 ‘앞부

분의 줄거리'를 제시하고 각색자 이영재를 소개한 이후에 장면 50부터 발췌 대목을 수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장면 50부터 연속적으로 장면을 게재하여 장면 62까지 가급적 중략 없이 수록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sup>4)</sup> 교과서 제제 수록 시 불필요한 편집이나 생략을 삽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했다고 할 수 있다.

지학사 수록 「내 마음의 풍금」은 다른 두 교과서에 비해 발췌 부분이 앞 부분이라는 특색을 지닌다. 천재교과서가 장면 54부터 수록하고 있고 비상교과서가 장면 62부터 수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이른 시점의 장면부터 수록한 경우이다. 이러한 장면 선택 의도는 장면 50에서 장면 53에서 펼쳐지는 서사에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담임교사 수하와 동료 교사 은희 사이의 레코드(엘피) 교환 사건이 전개된다. 이로 인해 지학사가 채택한 장면들은 은희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수하와, 수하에게 관심을 갖는 흥연, 그리고 흥연이 일기를 통해 그녀의 마음을 짐작하는 수하의 삼각구도가 선명하게 부각된다. 물론 은희가 수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은 암시적으로만 그려져 있지만, 수하를 둘러싼 두 여인의 태도가 소개된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삼각관계를 플롯의 중심으로 부상시키려 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읽는 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삼각관계의 부각이 흥미로운 플롯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장면 50~장면 53이 가미되면서, 수하의 장난(흥연 팔 꼬집기)은 실수가 아닌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며, 소위 말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과도한 관심으로 오인될 여지도 강하다.

텍스트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발췌 혹은 요약이라는 수록 방식을 동반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처리에서 독서 분량이 가져오는 의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의 상태라면 장면 50~53의 첨가는 구체적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면 54로부터 시작되는 천재교과서

---

4) 장면 59는 일부만 수록하고 상당 부분을 중략하고 있다. 다만 장면 59의 일부 다음에는 장면 60을 수록하여 그 연계성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애썼다(권영민 외, 『문학』, 지학사, 2013, 93~94면 참조).

의 수록 방식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3.1.2. 「내 마음의 풍금」의 제재 선택 이유

비상교과서(우) 교과서에서 이 작품을 수록한 이유는 ‘작품 해제’에서 일부 확인될 수 있다. 일단, 비상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해제’는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은 하근찬의 중편 소설 「여제자」(1981)를 각색한 작품이다. ‘홍연’은 시골 초등학교에 부임한 총각 선생님인 ‘수하’에 대한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소녀에서 여인으로 성숙해 가고, ‘수하’는 ‘홍연’의 마음을 짐작하면서도 사제 간이기에 짐짓 모른 채하며 동료 교사인 연희에게 연심을 품는다. 영화는 원작의 낭만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작품 속 일상의 묘미를 섬세하게 살려 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sup>5)</sup>

위의 해제에 담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여제자」를 각색한 「내 마음의 풍금」의 내용 설명(개략적인 줄거리)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여제자와 남교사의 ‘애절한 사랑’을 이 작품의 중심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 작품을 제재로 채택한 이유이다. 교과서 편찬자들은 ‘작품 해제’의 어구를 이용하여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을 ‘낭만적인 정서’로 수용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정서를 전달하기 위한 ‘일상의 묘미’를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개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편찬자들의 생각은 이 작품에서 애절한 사랑을 섬세한 필치로 다룬 솜씨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교과서 수록 대목은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발췌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천재교과서(정)에서 이 작품을 수록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 가능하다. 그 하나는 천재교과서(정) 교과서에 제시한 학습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작품 해석이다. 일단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두 개로 나뉘어 제시된다.

---

5) 우한용 외, 『문학, 비상교과서』, 2013, 65면.

<p>영상 매체의 창의적 표현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주목하여 읽어 보자.</p> <p>선생님을 사모하는 여학생의 마음을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파악하여 읽어 보자.</p>	<p><b>작품 소개</b></p> <p>하근찬의 소설 '여제자'를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복잡한 사건 전개 없이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 작품은 1960년대 시골 초등학교에 부임한 총각 교사와 그를 짝사랑하는 17세 늦깎이 여제자의 이야기로, 원작과는 다르게 수하와 흥연의 결혼으로 끝을 맺는다.</p>
<p>본문 서두의 학습 목표6)</p>	<p>본문 말미의 '작품 소개'7)</p>

위 학습 목표의 두 번째 항목에 의거하면, '선생님을 사모하는 여학생의 마음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대목을 골랐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재 교과서(정)는 흥연의 심리적 추이를 충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해당 수록 대목(장면 54~67)을 발췌했고 나아가서는 해당 작품('내 마음의 풍금')을 취택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대로, 이 작품을 취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작품 소개'에서 찾을 수 있다. 교과서 편찬자들은 「내 마음의 풍금」이 소설 「여제자」의 각색 시나리오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1960년대 시골 초등학교에 부임한 총각 교사와 그를 짝사랑하는 17세 늦깎이 여제자의 이야기로, 원작과는 다르게 수하와 흥연의 결혼으로 끝을 맺는다"고 부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짝사랑하는 17세 늦깎이 여제자의 이야기'를 작품 해설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한 점은 주목된다. 즉 여제자와 총각 교사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옹호하고 있으며, 이 작품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님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논점을 근거로 하면, 천재교과서(정) 교과서는 「내 마음의 풍금」을 남녀 사이에 피어나는 자연스러운 사랑과 그 실현 과정에서 파생되

6) 정재찬 외, 『문학』, 천재교과서, 2013, 97면.

7) 정재찬 외, 『문학』, 천재교과서, 2013, 103면.

는 감동(정서적 과장)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로서 「내 마음의 풍금」을 문학 제재로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확장하면, 교과서 편찬자들이 해당 교과의 학습자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해당 나이 또래의 자연스러운 정서를 작품을 통해 확인하고 그 감정의 의미를 자발적으로 발견하도록 유도했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지학사 교과서에서 이 작품을 수록한 이유는 수록 본문 말미에 부기된 간략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은 하근찬의 단편 소설 「여제자(1981)」를 각색하여 시나리오로 만든 것이다. 1960년대 강원도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17세 소녀 흥연의 풋풋한 첫사랑을 그리고 있다. 산골 마을에 부임한 총각 선생님이 수하를 짝사랑하는 흥연의 철없지만 순수한 모습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인물들의 순수한 정서가 돋보이며, 극적인 사건 전개 없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는 평을 받았다.<sup>8)</sup>

하근찬 단편 소설이 원작이라는 정보를 제외하면, 위 글에서 가장 강조하는 채택 이유는 ‘순수한 정서’라 할 수 있다. 수하를 짝사랑하는 흥연의 모습에서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서를 전달하는 데에 제재 선택의 이유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고 학습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정서 교육이자 감상 활동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순수한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이 반드시 영상문학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함부로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순수한 정서를 드러낸다는 목적만을 충족하려 든다면, 영상문학이 아닌 다른 장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영상문학에서는 순수한 사랑이 등장하는 제재를 고르지 말아야 한다고 오해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교과서 당 1편 내외의 영상문학이 수록되는 형편에서 제재의 선택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른바 영상문학의 특질을 더 침예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준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

8) 권영민 외, 『문학』, 지학사, 2013, 95면.

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더구나 위의 글에서는 ‘극적인 사건 전개 없이 잔잔한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 작품의 완성도가 높을 수 있다는 평을 곁들이고 있다. 이러한 관련 평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수긍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기존 평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인정하고 이러한 평가의 존재 여부는 따지지 말기로 하자. 다만 작품의 잔잔한 전개가 가정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이, 곧 『문학』 교과서의 교재로 이 작품을 선택해야 하는 필수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작품은 결격 사유를 더욱 충실하게 지녔다고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극문학 혹은 영상문학은 갈등을 주축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장르이고,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취택하는 다양한 형식과 기법으로 주목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부로 ‘극적인 사건 전개(가) 없’는 작품을 읽어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폐를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 3.1.3. 「내 마음의 풍금」의 학습 활동 비교

비상교과서(우) 교과서 내에 설정된 학습 활동은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된다(문항으로 제시된 학습 활동은 네 개이다). 첫째 활동은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는 활동이다(일종의 기본 학습 상황). 이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작품 속 상황’을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수화와 흥연의 심리와 성격’을 추출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활동은 소설과 영화의 차이(장르 변화)를 보여주면서, 상호 비교를 유도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두 번째 활동은 소설의 한 대목을 통해, 세 번째 활동은 두 장르의 감상을 수록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관련 내용을 비교/대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네 번째 활동 역시 「내 마음의 풍금」이 담보하는 매체(적) 특성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일종의 보충 학습 활동 격으로 이 작품이 뮤지컬로 각색되어 장르 변화를 한 내력을 소개하고, 이러한 각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적 특성

을 논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항으로 정리된 네 개의 학습활동 중 세 개의 학습활동은 매체와 관련된 활동에 치우쳐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시나리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련된 학습 활동 자체는 전무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천재교과서(정)의 실제 학습 활동 역시 이러한 심리(특히 흥연)를 읽어내는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천재교과서(정)의 학습활동은 구체적인 문두를 기반으로 하여, 단계별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점이 장점이다. 이를 위해 학습 활동 1과 2는 우선적으로 각 씬(scene)에서 지문이나 효과를 빌려와서(제시하고), 그 효과를 묻는 형태로 짜여 있다.

2. 흥연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S# 55)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1) 이 장면의 시간적 배경을 석양녘으로 설정하여 얻는 효과를 말해 보자.
- (2) 이 장면에 배경 음악을 삽입한다면 어떠한 음악이 적절할지 생각해 보자.

천재교과서 학습 활동9)

이중 학습 활동 2는 제시된 장면 55를 스스로 연출(장소 섭외, 음악 삽입)할 때 투영할 수 있는 효과를 묻고 있는데, 이러한 효과에 대한 질문은 해당 장면을 넘어 전체적인 사건 전개나 인물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때에만 온당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학습 활동(질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천재교과서(정)의 학습 활동은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면 학습 목표에서 제안한 ‘영상 매체의 창의적 표현’ 관련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 목표의 첫 번째 항목이나 단원 체제<sup>10)</sup>를 고려할 때, 이러한 활동은 최종적인

9) 정재찬 외, 『문학』, 천재교과서, 2013, 104면.

10) 「내 마음의 풍금」은 천재교과서 ‘3. 문학의 확장’ 가운데 ‘(1) 문학과 매체’의 재재로 채택되었다.

형태의 질문에 해당한다. 결국 「내 마음의 풍금」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는 매체의 변이와 그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학습 활동 2를 거쳐 학습 활동 3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학사 교과서에 수록된 실제 학습 활동은 비상교과서(우)의 학습 활동과 상당히 유사하다. 두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세 부류의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비상교과서(우)의 실제 문제는 4개였다는 차이점은 존재한다).

첫 번째 학습 활동은 내용 파악 학습 활동으로, 작품 속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 이해를 돕는 기본 학습 활동의 성격을 취하고 있다. 지학사 교과서에는 확장된 장면을 근거로, ‘엘피 음반’과 ‘홍연의 일기’를 비교하여 이해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다.

두 번째 활동은 시나리오의 변환 과정에 대한 학습 활동으로, 흔히 매체 변환에 대한 ‘생각할 화두’를 제시하는 활동에 속한다. 장면 54에 해당하는 원작 소설을 제시하고 시나리오와의 관련성을 탐구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비상교과서(우)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질문과 활동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더욱 현실적이다.

세 번째 활동 역시 매체 변환에 관한 학습 활동인데, 비상교과서(우)와 마찬가지로 뮤지컬로의 전환 과정에 대해 탐구 활동을 유도한 경우이다. 뮤지컬 대본을 구체적으로 수록한 점에서 상세화 된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학습 활동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점도 발전된 사항이라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학습활동의 목표는 매체 전환과 그 연관성을 살피는 일에 집중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 3.2. 「서편제」의 수록 양상과 문제점

이청준 원작 김명곤 각색 시나리오 「서편제」은 총 3종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이다. 이 시나리오를 수록한 교과서는 비상교육(한철우), 좋은책신사고, 동아출판(더 읽을거리로 게재) 출간 교과서이다. 3종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각광 받은 경우이지만, 정작 이 시나리오가 수록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논구할 필요가 있다.

### 3.2.1. 「서편제」의 수록 방식

비상교육(한) 교과서는 「서편제」를 수록할 때 등장인물과 앞부분 줄거리 그리고 작가(원작자와 각색자)를 소개한 이후에, 장면(S#) 75부터 일련의 장면을 수록하고 있다. 수록 첫 대목에 해당하는 장면 75는 유봉(아버지)과 송화(딸, 소리꾼)이 폐가에 도착하여 머물기 시작하는 장면이다(S#75 소릿재 폐가).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본래 소리꾼 유봉과 의붓딸 송화 그리고 금산댁(유봉과 함께 산 여인)의 아들 동호가 유랑 소리꾼 일행을 이미 형성했었다는 사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입부 장면(장면 75와 일련의 장면)이 동호가 떠난 이후라는 시간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유봉이 송화의 눈을 멀게 하여 관소리에 ‘한’을 심으려 한 비밀을 확인하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입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면 75’/‘장면 79’/‘장면 84’를 무분별하게 발췌하는 한계를 드러냈고, 편찬자의 작의적 의도에 부합하도록 작품(시나리오)의 단속적으로 연결했다는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수록 방식은 편찬자의 임의대로 작품의 흐름을 무분별하게 조정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방식이다.<sup>11)</sup>

더구나 앞부분 줄거리와 발췌 수록 이후에도, 「서편제」 시나리오의 흐름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다시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삽입하여 내용 이해를 돕는 설정은 납득하기 힘들다. ‘앞부분의 줄거리’ → 임의 발췌 수록 →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모두 도용된 셈인데, 이러한 방식은 아무래도 무리하

11) 선택 과목의 편찬상의 유의점에서도 “작품 전체를 원문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약하거나, 현대어로 수정 또는 주석을 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진재관 외, 「2011년 고등학교 선택과목 검정도서 검정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CRC 2010-12)』, 2010, 42면).

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교과서 편찬 원칙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의도를 억지로 감안한다면, 이러한 무리한 수록 방식을 ‘중략’ 이후의 상황을 온전하게 제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기는 하다. 실제로 ‘중략’ 이후 장면은 장면 91부터 장면 99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성(continuity)을 유지하고자 애쓰고 있다. 즉 외딴 집에서 혼자 사는 송화를 동호가 찾아오는 장면 91부터, 동호와 헤어지는 장면 95를 거쳐, 다시 송화마저 떠나는 장면 99로 이어지는 장면의 흐름은 작품의 연속성을 담보하고는 있다. 이러한 변화(중략 이전의 발췌 수록과 이후의 연속 수록)는 곧 이들(유봉 일가의 만남이 지나는 ‘한(恨)’과 ‘연(緣)’의 사정을 보여주는 것에 수록 대목(발췌 의도)이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편찬자의 의도는 ‘중략 이전’의 도입부를 활용하여, ‘중략 이후’의 연속성을 배가하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편찬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의 장면 흐름을 지나치게 임의로 발췌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완결된 작품이 지니는 구조적 특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으며, 시나리오를 온전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정가감이 가능한 임시 텍스트로 여기는 기존의 오류를 두둔했다는 약점을 남겨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서편제」의 수록 방식은 권장할 사안이 아니며, 오히려 크게 경계해야 할 오류로 판단하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반면 좋은책신사고 교과서에 수록된 「서편제」는 기본적으로 비상교육(한)의 「서편제」와 동일한 대목을 선택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수록 방식을 달리 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내장한다. 두 교과서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좋은책신사고 교과서가 「서편제」 시나리오의 장면 구성을 무리하게 재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좋은책신사고 교과서는 장면 89에서 시작하여 장면 99에 이르는 서사의 흐름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임의로 생략한 장면도 없고, ‘중략’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장면 89에서 동호가 염전 주막으로 들어오는 장면부터, 동호와 송화가 차례로 염전 주막으로 떠나는 장면까지를 온전하게(중단 없이) 게재

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비상교육(한) 교과서가 중락을 사용하면서까지 도입부를 억지로 형성하고 작품의 배경을 설명하려 했던 방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수록 방식이었다.

다만 좋은책신사고 교과서는 서사의 전개를 돕기 위해서 ‘앞부분의 줄거리’를 다소 길게 삽입하기는 했다. 교과서에 수록되는 분량이 암묵적으로 한정된다고 할 때,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편찬자들의 선택일 것이다. 그럼에도 좋은책신사고의 수록 방식은 한 편의 완결된 문학작품으로 시나리오를 바라보고 있다는 저작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좋은책신사고의 수록 유형을 보면, 가급적 불필요한 인위적 손질을 억제한 정황이 확인된다. 앞 줄거리 이외에는 부차적 설명—가령 작품 해설 같은—을 부기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정황을 시사하는 증거이다. 이러한 수록 방식은 작품 수록 측면에서 최대한 감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록 방식은 그 끝자만 놓고 볼 때 교과서에서 권장할 만한 방식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 편찬자들이 투영하는 인위적 개입(임의 발췌)이 억제되고 작품의 본래 흐름을 그대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표면적인 수록 방식은 내면적인 채택 이유와 어우러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만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해도, 「서편제」의 해당 대목을 가급적 원전(각색자의 의도)에 가깝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마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의 두 교과서의 체제와는 달리 동아출판 교과서에 수록된 「서편제」는 단원 마무리에 수록된 보조 제재로 다루어졌다는 차이점이 내재한다. 이 문학 교과서의 ‘II. 문학과 수용과 생산’에는 차례로 서정/서사/극/교술 장르를 다루고 있는데, 이중 ‘3. 극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는 이강백의 「결혼」과 정현우 각본의 「페이스메이커」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는 극 문학의 장르 개념 중에서 희곡과 시나리오를 고루 담아내기 위한 체제인데, 시나리오 「페이스메이커」의 ‘더 읽을거리’로 시나리오 「서편제」가 수록된 것이다.

「서편제」가 위치하는 대목은 ‘소단원 마무리’의 내의 ‘작품 더하기’이므로 수

업 부담이 착실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아니다. 별도의 작품 이해나 보충 해설 혹은 관련 학습 활동 역시 부기되지 않았다.

### 3.2.2. 「서편제」의 제재 선택 이유

비상교육(한) 교과서에서 작품 「서편제」를 수록한 이유는 작품의 수록 방식과 ‘감상 열기’라고 호칭된 ‘읽기 전에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감상 열기’에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소리꾼 부녀의 삶과 한의 예술적 승화에 주목하여 감상”하자는 지시문이 배치되어 있다. 결국 편찬자들은 「서편제」를 통해 송화로 대변되는 소리꾼의 기예에서 ‘한’이 차지하는 역할을 밝히고, 그 ‘한’을 풀어내는 예인의 완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수록 방식에서도 확인되듯, 비상교육(한) 교과서의 「서편제」는 송화와 동호의 만남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러한 만남을 설명하기 위한 전사(前事)로 ‘중략 전서사(줄거리)’를 배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교과서가 설정한 목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이라는 정서적 실체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없으며, 동호와 송화의 관계에서 한의 미학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편제」의 영화(원작 소설 포함)적 주제가 ‘한’의 승화인 것은 분명하지만 유봉이 송화의 눈을 멀게 하고 그러한 송화를 동호가 찾아 헤매는 설정으로 이러한 주제의식을 학생인 학습자에게 온전히 전달하기란 수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비상교육(한) 교과서가 이 작품을 취택한 이유를 온전하게 구현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은 「서편제」라는 작품 취택 여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학습 목표와 연관 짓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는 난관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앞의 사례와는 달리, 좋은책신사고 교과서에서 이 작품을 채택한 이유는 학습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은 학습 목표 격에 해당하는 단원 첫 머리에 제시된 학습 목표이다.

이 작품은 이청준의 연작 소설 「남도 사람」을 영화화 한 것이다.  
 이 작품을 감상하며 문학이 다른 매체로 구현되는 방식을 이해해 보자.<sup>12)</sup>

좋은책신사고 교과서의 「서편제」는 문학의 매체 변환 방식을 학습하기 위한 제재로 도입되었다. 교과서 구성 체계에서도 ‘문학의 인접 분야와 매체’라는 중단원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니 문학의 실용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척도와 기준을 확보하려는 편찬 의도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라고 하겠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서편제」를 매체 변용의 사례(제재)로 활용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일단 이청준의 「남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청준의 이 소설은 그의 다른 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진 소설이 아닌데다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즐겨 다루는 소설 작품도 아니다. 당연히 학생들에게는 낯선 작품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원작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매체 전환 사례로 제시하는 데에는 정황상 재고의 여지가 있다.

교과서 편찬자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활동을 통해 원작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원작 소설의 각색 문제를 학습하는 데에 뒤따르는 걸림돌을 온전히 제거했다고 볼 수 없다(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편제」를 수록하는 방식에서는 무리 없는 흐름을 선보였지만, 이 제재를 선택한 이유는 다소 분명하게 해명되지 못했다는 약점이 내재한다. 매체 변용의 사례로 「서편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내재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아출판 교과서에 「서편제」가 보조 텍스트로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작품의 제재 선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긴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몇 가지 위의 설명을 통해 확인되는 사안이 있어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일단 ‘보충 제재’로 게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원작이 무엇

12)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3, 67면.

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동아출판 교과서는 해당 원작이 이청준의 연작 소설 「남도 사람」이라는 점을 기술하고 있고, 이 원작을 김명곤이 각색하고 임권택이 연출(감독)했다는 서지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등장인물의 관계와 소재로서의 판소리 그리고 ‘한의 예술적 승화’라는 주제를 적시한 점도 확인된다. 이것은 비상교육(한)에서 강조한 주제 의식과 유사한데,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면 84의 일부를 읽을거리로 제공한다. 장면 84는 비상교육(한)에서도 제재로 발췌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를 근거로 비상교육(한) 교과서와 동아출판 교과서는 공히 장면 84가 지니는 서사로서의 가치(중핵적 장면)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면이 아버지(스승)가 딸(제자)에게 예술 창작의 근본적 동인(동기)에 대해 숙지시키고 그 가치를 설파하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한의 승화’라는 주제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제재 선택 이유는 비상교육(한) 교과서에서도 확인한 대로, 기본적으로는 송화와 동호의 만남을 전제하고 그 한의 해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더 읽을거리로서 이러한 점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3.2.3. 「서편제」의 학습 활동 비교

비상교육(한) 교과서는 작품 취택에서도 당초 목표와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학습 활동에서도 불일치는 여전히 확인된다. 가령, 5개의 학습 활동에서 ‘한의 예술적 승화’에 대해 질문하는 활동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점은 대표적인 불일치 사안이다. 더구나 비상교육(한) 학습 활동은 추상적이고 총괄적일뿐만 아니라, 텍스트(제재)만으로는 답변이 곤란한 항목도 다수에 이른다.

가령 판소리를 삽입하여 얻는 효과를 묻는 학습 활동 2는 아무래도 「서편제」에 대한 간단한 텍스트(제시)만으로는 그 대답을 구현할 방법이 없어 보

이다. 물론 교사의 지도와 주변 자료(보충)를 통해 질문과 그 대답으로서의 답변을 보완한다는 전제를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겠지만, 「서편제」가 판소리를 다루었다고 해서 판소리의 삽입 효과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판소리의 효과가 어떻게 ‘한의 예술적 승화’와 연결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중간 단계 별 사고가 부족하다고 해야 한다.



학습 활동 3은 장면 91에서 장면 93으로 전환할 때, 설정화면(establishing shot)<sup>13)</sup>으로 장면 92가 삽입되는(insert) 현상에 대한 질의이다. 하지만 실제 학습 활동의 문두는 이러한 의미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 학습 활동의 문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학습 활동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습 활동 4는 답변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크게 요긴한 활동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 예술적 승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렇게 학습 활동을 일일이 살펴보면, 학습 활동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 막연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결함들은 다시 하나의 문제적 지점으로 회귀된다. 그것은 비상교육(한)의 「서편제」 채택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 제제를 바탕으로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가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좋은 책 신사고 교과서의 「서편제」는 매체 변용(각색)을 학습하기 위한 제제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학습 활동 역시 이러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네 개의 학습 활동 가운데, 처음 두 개의 학습 활동은 전체 내용 파악과 그 정리에 해당한다. 학습 활동 1은 줄거리 정리와 장면 요약의 유도를 하고 있고, 학습 활동 2는 판소리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13) 설정화면(establishing shot)은 작품의 전체 서사나 시공간적 배경을 관람자들이 수월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쇼트의 일종으로, 광범위한 공간을 포착하여 영화의 윤곽을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장면을 가리킨다(스테판 샤프, 이용관 옮김, 『영화구조의 미학』, 영화언어, 1991, 159~160면 참조).

흥미로운 점은 학습 활동 2는 비상교육(한)의 학습 활동 2와 출제 의도 상으로는 매우 흡사한 학습 활동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p><b>2</b> 작품에 삽입된 판소리 '심청가'의 대목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p> <p>(1) 송화의 삶을 심청가와 비교해 보자.</p> <p>(2) '심청가'를 부르는 송화의 심정을 추측해 보자.</p> 	<p><b>2</b> 'S# 93'에서 다음과 같은 판소리를 삽입하여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p> <p>송화 심 풍사 이 말을 듣고 면눈을 뉘번덕거리며 / 에이 이제 뉘 말이나 누가 날디미 아버지라고 하여 /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 무남독녀 외말 하나 / 물에 빠져 죽은 자가 / 우금 삼 년인디 / 아버지라니 누구여 / 아이고 아버지 / 여태 눈을 못 뜨겠소 / 아버지 눈을 떠서 / 어어저 나를 보옵소서</p> 
<p>좋은책신사고 「서편제」 학습 활동14)</p>	<p>비상교육(한) 「서편제」 학습 활동15)</p>

우측 학습 활동에서는 판소리 효과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어, 그 대답을 찾는 과정이 광범위하고 또 난해할 수밖에 없다. 이 학습 활동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송화의 판소리 「심청가」를 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은 사실상 고등학생에게 요구하기 어려운 활동이다.

반면 좌측 학습 활동은 그 과정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한 흔적이 역력하다. 학습자들이 비록 판소리 「심청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활동 (1)과 활동 (2)를 통해 학습 활동의 궁극적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내용 파악의 수준에서 「심청가」를 부르는 송화의 모습을 먼저 이해하고, 그러한 송화로 하여금 「심청가」를 부르게 한 작가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우측 학습 활동과는 달리 좌측 학습 활동은 내용 파악의 수

14)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3, 73면.

15) 한철우 외, 『문학』, 비상교육, 2013, 93면.

준에서 학습 활동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좋은책신사고가 판소리의 효과를 궁극적으로 물어야 하는 학습 활동을 펼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좋은책신사고는 학습 활동 1과 2를 통해, 매체 변용 사례로서 「서편제」를 파악하기 위한 학습 활동 3과 4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 단계를 확보하는 일에 일차 목표를 둔 경우이다. 이러한 학습 활동의 단계적 구성과 수준 안배 형식은 적절하다고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최종 학습 목표 구현으로서 학습 활동 3과 4는 이러한 안배(효과)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전술한 대로, 학습 활동 3은 이청준의 원작 소설 「남도 사람(2)」의 관련 대목을 인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면 97-99에 이르는 제재(「서편제」)의 미학적 효과와 장르 별 차이를 살피는 활동이다.

하지만 소설 자체가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이청준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 아닌 상황에서, 한 부분의 소설 제시(읽기)만으로 ‘인쇄 매체와 영상 매체’의 차이점을 찾거나 ‘심미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러한 활동만 놓고 본다면 학습 활동이 추구하는 목표가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학습 활동 4에서도 확인되는데, 뮤지컬 「서편제」의 스틸 사진 두 컷을 제시하고 역시 소설과 뮤지컬의 차이를 찾고 그 특징을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과다한 학습 활동이라고 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형식의 학습 활동은 비단 좋은책신사고나 「서편제」 제재 수록 대목에서만 발견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학습 활동 양식 자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확인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 「서편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텍스트(학습 제재)인가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과다한 학습 활동에 해당하는 3, 4를 뒷받침할 만한 텍스트인지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편제」가 2013년 이후 학습 대상자에게 친밀한 텍스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편적으로 관람한 영화 작품도 아니며, 게다가 그 원작 텍스트가 지닌 대중적 공감대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점에서 적합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무리한 학습 활동이 이어지는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 4. 학습 활동과 연계 학습의 궁극적 목적

『문학』 교과서에서 제제로 선택된 작품은 그 자체로도 자기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학습 활동의 적합한 기저 텍스트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성향은 실제로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고루 충족하기 위해서는 작품 선택뿐만 아니라 발췌 대목의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

작품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수록 범위의 고민을 야기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고민은 선정 작품에서 핵심 대목을 추출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제제로 선택된 작품이 그 자체로 결격 사유가 없고 관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발췌 대목으로 추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이러한 적절성은 학습 활동의 연계(성)와 무관하지 않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활동은 학습자에게 텍스트를 이해하도록 도움과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시에, 해당 수록 텍스트의 가치를 밝히는 궁극적인 단서가 될 수 있어야 한다.<sup>16)</sup> 질문은 질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대한 답변(궁리)에서 얻을 수 있는 미적 효과 즉 심미적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소해 보이는 발췌 대목이지만, 작품 전반의 심미적 결과가 발췌 대목의 그것과 합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일성이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자아를 성찰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찰하는 활동과도 연계되어

---

16) 최광석, 「홍길동전의 교과서 수용 양상과 목표 학습 활동의 재구성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어문학』(108집), 한국어문학회, 2010, 139~154면 참조

야 한다.<sup>17)</sup>

더구나 문학(작품)은 그 자체로 지식이나 정보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자아/타자/집단/사회 등의 공동체적 삶의 질서와 연관되어야 한다. 문학이 박물관적 전시품이거나 완고한 보편 지식으로만 기능하기를 원한다면, 문학 교육은 또 하나의 교육적 폐해를 낳을 우려도 동시에 증가시킬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상문학이 문학의 한 갈래이고, 가장 오래된 갈래 중 하나인 극문학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할 때, 이러한 영상문학을 흥미나 인기의 척도에서만 파악하지 않고, 완성도를 갖춘 창작물이거나 미적 질서의 구현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전문가적인 조건을 갖춘 편찬자들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문학』 교과서의 편찬 진영은 이러한 논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작품을 읽고 수행하는 활동도 비단 내용 파악이나 영화(텔레비전)적 특성을 공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러한 영상미학이 발전시키는 심미적 효과와 그로 인해 확보할 수 있는 자아 성찰과 정체성 회복의 층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가르치기 편하고 질문할 거리가 많은 작품(제재)을 찾아, 혹은 흥미 위주의 텍스트나 인기도가 높은 작품을 골라 영상문학의 제재를 삽입하는 풍토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활동에서 해당 제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습 활동의 발전된 양태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극문학 혹은 영상문학의 기본적 속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학습 활동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요건을 갖춘 제재의 출현을 저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텍스트라면, 소위 말하는 일반적 수준의 영화나 그 시나리오라면, 이러한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7) 정래필, 「소설 읽기 교육의 ‘전유’ 방법 연구 - 문학 교과서 ‘활동’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10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5, 122면 참조.

## 5. 영상문학 교육 제재 선정과 『문학』 교과서 편찬상의 기준에 대한 재고

위의 본문에서 논의한 몇 가지 유의점은 교과서의 제재로서 영상문학 텍스트를 다루는 현재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영상문학의 연속적 흐름, 즉 시나리오나 텔레비전 드라마 대본의 연속성(continuity)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교과서 편찬자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에 맞게 단순 중략을 넘어 작품 자체의 흐름을 훼손하고 있다. 이것은 시를 수록할 때, 몇 행을 임의로 빼는 것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행동이다.

그 다음으로 영상문학을 독자적인 문학의 한 갈래 인정하기보다는 콘텐츠의 각색이나 활용 결과로 여기는 성향이 강하다. 매체 변환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영상문학을 소설이나 그 밖의 문학 장르의 변화된 형태로 간주하는 의식도 강하다. 영상문학 작품을 원작이 있는 작품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식은 학습 목표와 제재 취택 상의 혼란을 야기한다.

영상문학은 문학의 전이 형태로 다루어지기 이전에 영상문학 고유의 갈래로 우선 학습되어야 한다. 만일 문학 내부의 장르 변화를 학습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학습을 위한 장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영상문학 제재를 선택한 이후에, 영상문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장르 변화 그리고 (개념도 분명하지 않은) 매체 변화를 함께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편찬 방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문학의 불균등한 학습을 초래하고, 영상문학을 문학의 당당한 하위 장르가 아니라 변형대로 인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전공 지식의 부재가 낳은 편견에 해당한다. 교과서 편찬자들이 이러한 오류와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나 소설 같은 장르상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영상문학에 대한 독립적 시각을 확보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가 교과서 편찬에 동참하는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학습 활동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들은 제재 선택에서 나타난 문제를 그

대로 답습한다. 매체 변환에 대해 참고할 만한 견해나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설 원작을 시나리오나 뮤지컬 대본 혹은 텔레비전 드라마로 각색하는 작업 자체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피는 학습 활동을 무책임하게 제시하고 있다. 현재 각종 교과서에 제시된(본론에서 예로 든 경우에도 상당 부분의) 학습 활동은 학생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국어 교사의 개입을 인정한다 해도 무리한 학습 활동이 적지 않다.

이것은 매체 변환에 대한 학습 활동 상의 합의된 개념이 부재하면서도 이를 국어 교과서의 편찬 기준부터 일방적으로 삽입한 후유증에 해당한다. 학습 활동이 제대로 된 교육 목표 점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위 장르로서의 문학 갈래로서 영상문학과, 문학을 각색하여 텍스트를 변환하는 작업, 그리고 매체의 특징과 그 차이를 존중하는 실제 창작 활동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현 교과서에서 이러한 차이를 이해한 교과서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또한 이해해야 한다.

영상문학은 영화의 대본이기 이전에, 읽을 수 있는 문학의 이웃 장르이다. 시나리오가 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고는 사실 문학의 일부로서 시나리오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제 해당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가 영화의 대본이기 이전에 문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수록 방식과 학습 목표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각색은 문학 장르 간의 이동을 뜻하기 때문에, 영상문학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목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시나 소설이 원작이 되고, 시나리오를 포함한 영상문학 작품이 각색(작)이 될 수 있는 것은 문학 장르 간의 이동 현상에 국한할 따름이다. 모든 시나리오가 각색(작)이 아니고, 모든 텔레비전 드라마가 소설을 원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작품만을 선별하여 영상문학을 학습하는 단원에서 각색(작)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상문학 고유의 특징과 개성을 가르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는 선별 작업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당연히 원칙적으로만 따진다면 희곡과 영상 문학이 원작이 되어, 시나 소설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영화로 나아가거나 원작이 텔레비전 드라마가 되는 과정은 별도의 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문학』 교과서에 존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문학』 교과서는 편찬 과정에서 이러한 고민을 깊게 투영한 흔적이 미약하다. 하위 장르로서 시나 소설류의 작품은 그 자체로 문학일 수 있지만, 시나리오나 텔레비전 드라마 대본은 온전히 그 자체로는 문학이 될 수 없다고 믿으며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끌어들이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속단을 바로잡는 작업에서 영상문학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으로 진단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권영민 외, 『문학』, 지학사, 2013, 93~95면.  
김창원 외, 『문학』, 동아출판, 2013, 143면.  
우한용 외, 『문학』, 비상교과서, 2013, 65면.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3, 67~73면.  
정재찬 외, 『문학』, 천재교과서, 2013, 97~104면.  
한철우 외, 『문학』, 비상교육, 2013, 86~93면.

### 2. 논저

- 김창원, 「문학교육의 성격과 문학 교과서의 지향」, 『국어교육학연구』(27집), 국어교육학회, 2006, 196~198면.  
스태판 샤프, 이용관 옮김, 『영화구조의 미학』, 영화언어, 1991, 159~160면.  
정래필, 「소설 읽기 교육의 ‘전유’ 방법 연구 - 문학 교과서 ‘활동’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10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5, 113~136면.  
진재관 외, 「2011년 고등학교 선택과목 검정도서 검정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CRC 2010-12)』, 2010, 41~42면.  
최호석, 「고전소설 교육의 소통을 위한 제언-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에 따른 문학교과서의 제 문제」, 『한어문교육』(30집), 한국언어문학 교육학회, 2014.  
최광석, 「『홍길동전』의 교과서 수용 양상과 목표 학습 활동의 재구성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어문학』(108집), 한국어문학회, 2010, 139~154면 참조

【Abstracts】

## The Current Status and Alternatives of Film Literature Education

Kim Nam-seok

This study is the result to analyze the current 11 types of Literature textbook which is used as learning materials in the high school through the textbook examination in August 2013. As the analysis texts, *The Harmonium in My Memory* and *Sopyonje* as the screenplay selected. In this study, 'collection method', 'reason for selection', and 'learning activity' were separated for each work,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separately. And this study tried to diagnose the problems of current textbook system by comparing the results. Although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method of collecting textbooks are evident, it is difficult to conceal the prejudice of the collection system and the absence of relevant knowledge in the whole point of view. The most urgent problem is that they have to choose the appropriate sanctions and disregard the inevitable and professional views on the teaching curriculum.

Key word : High school Korean language, Literature textbook, scenario, *The Harmonium in My Memory*, *Sopyonje*

이 논문은 2017년 10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11월 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